

모바일 + 현장 투표 민주 공천방식 확정

총선 후보자 선정 국민경선제 도입 후보자간 합의편 100% 여론조사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자 선정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동원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민주통합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12년 총선 후보자 선정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당규와 시행세칙 등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 후보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100%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 모집 규모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바일+현장 투표 70%+여론조사 30%'의 방식으로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동시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마감 이전에 경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선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참여 자격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여야 하며 타 정당의 당원이거나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유권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접수 방법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와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등이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소유해야 하며 주소 확인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대조해서 확인한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인에 이를 통보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을 제출하면 선거인단에 등록된다. 현장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된 현장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의 가중치는 없으며 1인 1표 원칙이다.
개표는 현장 투표 종료 이후, 모바일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시민 배심원제는 지도부 일에서 도입 검토 입장을 보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이번 총선에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투표와 선거

인단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의 치열한 '동원 전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방식이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정치 신인들에게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민심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모바일 투표에 연결하느냐가 정치 신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 격차가 심한 농어촌 지역에는 모바일 투표가 오히려 경선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대 이상 농어촌 지역구 유권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바일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은데다 참여하더라도 휴대폰 조작이 서툴러 정상적 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은 혁명적이지만 농어촌지역은 노인 인구가 40% 이상이고, 정보 격차가 심한 50대 이상은 70%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모바일 투표에서의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구에 현장 투표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보름 풍등 날리기 지난 5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0회 광주 칠석 고싸움 놀이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풍등(風燈) 100여개를 날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

정부 종합대책 발표...가해학생 무기한 출석정지 가능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조작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처벌된다. 학교폭력 그룹인 '일진'을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감시·적발하는 '일진경보제'가 신설되고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기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담임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원칙을 세워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인성회복 순환교실제' 등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조작·성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징계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무기한 출석정지가 가능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해당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담임 외에 부담임을 신설해 2명의 담임이 학생생활지도를 분담하는 복수담임제가 올해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고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은 폭력 처벌과 일진을 색출하기 위한 탐색지표를 개발, 정기적인 무기명 표본조사 등을 통해 일정 최소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게 된다.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을 기재해 초·중·고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정부 대책과 맞물려 광주시교육청은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되,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반드시 처

별하고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한다. 또 초등학교 1~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회복 순환교실제'를 도입한다. 인성회복 순환교실은 3월 개교하는 한울고에 마련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또 ▲학급 상담망을 통한 신고문화 조성 ▲담임교사 중심 폭력 예방지도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3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수박람회 참가국 회의 101개국 대표 7~9일 서울·여수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회의가 서울과 여수에서 열린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7일 환경 리셉션을 시작으로 9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박람회 참가를 확정된 각 국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준비 등 최종 점검을 위한 참가국 회의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하는 이 회

의에는 참가를 확정된 106개 국가 중 101개국 대표를 비롯해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개회사, 로세르 탈레스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축사, 강동석 박람회조직위원장·BIE 사무총장 합동인터뷰 등으로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울러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들은 ▲박람회 일반 현황 ▲전시시설 시공 상황 ▲박람회장 운영 ▲교통·숙박·관광 대책과 문화·예술행사 등의 일정도 발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9일에는 여수 박람회장으로 이동, 박람회시설 브리핑을 받고 각 참가국들의 국제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2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것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설염감, 인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기 센터가) 경희한의원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장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편대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비가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담허겁(心膽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만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행(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성이 심한 경우는 대중치료를 통해 신체중성을 우선 개선 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담허겁으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임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